

國語表記法論爭史

金 敏 洙
(高麗大 教授, 國語學)

1. 緒論 : 言語의 文字化

外來文字를 차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新文字를 창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첫째로 표기할 言語의 音韻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정해야 하고, 둘째로 그 音韻에 1대 1로 대응하는 表記文字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言語의 文字化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령, 淸太祖가 蒙古文字를 빌어서 만든 소위 無圈點滿洲文字는 a e, o u, k g, t d 등이 구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실패는 동그라미와 점을 붙인 有圈點文字로 개량함으로써 해결했던 것이다.¹⁾

言語의 文字化에는 自然形成과 人爲形成의 두 경우가 있다. 自然形成은 그 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文化史的으로 고안되거나 전파된 既存文字가 채용된 경우이며, 人爲形成은 어떤 文字를 차용하든지 만들든지 일부러 창제하는 경우다. 그런데, 新文字를 창제하는 人爲形成의 경우에는 좀처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글 創制의 성공은 역사적으로 특

1) 淸朝의 전신인 金朝에서는 漢字를 변형해서 만든 女眞大字(1119), 女眞小字(1138)를 사용하였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淸太祖는 額爾德尼와 噶蓋의 자문을 받고 女眞族이 文語로 사용하던 蒙古語의 文字를 응용하여 無圈點文字를 창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 發音表記에 적합지 않아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淸太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여년이 지난 1632년에 達海에게 그 개량을 명하여 이른바 有圈點文字가 이루어졌다. 이 文字는 지금도 그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수한 예라 하겠는데, 그 성공의 이면에는 國語의 文字化에 필요한 言語理論이 고도로 연구되었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글은 당시의 音素와 그 文字와의 사이에 對應이 이루어지고, 그 表記法은 배우기 쉬운 실용적 편의를 위하여 音素表記가 채택되었다. 애초부터 지나치게 정밀한 音聲表記는 배제하였고, 엇갈리던 音素表記와 形態表記의 문제는 실용적인 音素表記로 낙착된 것이다. 이 결정이 1차 音素表記대 形態表記의 대립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表記法變遷史는 이 문제의 대립으로 일관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것은 물론 양극단이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결국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정도에 있었다.

2. 訓民正音의 表記法(1443~1500)

1443(世宗 25)년 12월에 창제된 한글은 당초에 「訓民正音例義」에서 字母와 그 音價 및 用法을 규정하였다. 우선 字母 28자는 당시의 國語表記에 부족함이 없었다. 즉, 國語의 音韻分析이 정밀하여, 이에 대응하는 字母가 빠짐없이 설정되었다. 다음, 그 用法은 字母를 音節式 合字法으로 규정하여 漢字混用の 요구를 충족시켰다.²⁾ 漢字만으로 표기된 漢文과 吏讀을 사용하던 당시의 二元制 文字生活 속에 新文字가 새로 뛰어들 만큼, 이런 合字規程은 訓民正音이 성공한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어 1446(世宗 28)년 9월에 편찬된 자습서 「訓民正音解例」에서는 新文字創制의 이론적 해설과 함께 특히 간편한 表記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규정을 종합하면,

2) 특히 그 用法章에 규정된 ‘終聲復用初聲’은 모든 初聲字를 終聲에도 쓴다는 설명이라고 잘못 해석되고 있었다. 이것은 28자의 音價章에서 규정되지 않은 終聲字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성의 初聲字로써 대용한다는 규정이다. 가령, 初聲의 ㄱ(근, 감) 外破音과 終聲의 ㄱ(악, 독) 內破音은 한 音素이면서 서로 다른 異音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은 당시 分析家들이 이미 이런 사실까지 속속들이 간파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규정이니, 그 音韻分析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했었는지 놀랍다. 李基文(1963. 24~25, 76~77, 163~164) 참조.

받을 愚民을 위한 최선책이므로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의 이러한 대립은 形態表記의 「龍飛御天歌」 및 「月印千江之曲」과 여타의 音素表記에 나타났다. 당시로서 특이한 形態表記은 가령

1) 「龍飛御天歌」(팔호 속 章數)

꽃도코(2) 일어서놀(8) 칠나래(12) 운보리(16) 얹은(24) 깊고, 높고(34) 좇
거늘(36) 놀이(43) ㄹ(68, 125) 숨거니(72) 빛나(80) 새났(84) 앓이(103) 등.
예외: 기론, 브르래, 저미, 브른, 마르래, 이러(2) 등.

2) 「月印千江之曲」(팔호 속 其)

눈에(2) 담아(4) 꽃(7, 42, 81) 늪이(11) 낮과(16) ㄹ, 숨겨(26) 몸이(29) 보
름애(31) 말올(32) 새날 붙쨌(40) 늦 고비 뵈여(49) 앞뒤헛(70) 높고도(99) 등.
예외: 슬결리(1) 고줄(6) 고지(7) 기프실쨌(8) 도다(9) 조초니(11) 조쨌쨌니,
드르니이다(14) 등.

등과 같은 받침으로 반영되었다. 물론 形態表記라고 해도 그 예외가 적지 않아서 양자 사이의 한 절충안의 성격이다. 반면에, 여타의 音素表記에서도 音韻變異나 連音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이소리를 표기한 것이 있어 철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音素表記은 「釋譜詳節」을 읽고서 간결하다고 느끼듯이 누구나 쓰기에 매우 쉬운 방식이었다.

3. 近代以前の 表記法(1500~1894)

訓民正音 당초의 表記法은 이윽고 八終聲에 근거한 「訓蒙字會」 諺文字母式 文字體系로 발전하였다.⁴⁾ 成 俔의 「慵齋叢話」 권 7에 初終聲八字와 初聲八字의 구분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것은 成 俔(1439~1504)代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행해지던 방식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崔世珍의 「訓蒙字會」에 명시된 이 방식은 이후 한글보급에 기여하면서 현대까지도 잔

4) 이 諺文字母가 당초의 체제이며, ㄱ자를 보텐 28자는 世宗 28년에 수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이 諺文字母에 덧붙여 적은 '俗所謂反切二十七字'와 崔萬理 등의 上疏文(1444)에 나온 '二十七字諺文'이라고 하였다. 李東林(1963, 1974) 참조.

존한다. 말하자면, 당초의 八終聲과 諺文字母式 表記法은 오랜 세월을 걸쳐 하나의 國語正書法에 관한 규정으로서 유일한 기준이었다.

16 세기의 表記法은 ㄱ자와 ㅇ初聲이 사라지고, 분명하던 ㄷㅌ받침의 구별과 四聲傍點이 문란해졌다. 그러나, 16세기말 壬辰倭亂을 고비로 그 직후 17세기의 表記法은 더 많이 변화하였다. △병 ㅇ과 傍點이 없어지고, ㄷㅌ받침이나 初聲並書는 단일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런 表記法體系가 결국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는데, 18세기 초에 나타난 이른바 받침줄의 판이인 重中聲과 와위줄인 合中聲은 누가 언제 고안하였는지 모르지만 合字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우 요긴한 것이었다.⁵⁾

- 1) 가갸겨겨 교교구구그기마 파꿔
나냐녀녀노노뉴뉴느니느 녀눠
- 2) 각각적적목○국○극극쪽쪽
개개게게괴괴귀귀괴○리 패꿔
내내네네녀녀뉴뉴녀○릭 내눠

5) 이른바 十六行反切의 받침줄 9자와 외위줄의 生成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朝鮮通信使 從事官記室 張應斗가 1719(肅宗 42)년 9월에 日人에게 써준 朝鮮諺文으로 밝혀졌다. 그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金敏洙(1985) 참조.

한 왜웨습字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물론 빈칸에 해당하는 怪聲辟字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습字表에서 빈칸原理를 깨치게 하였다.⁶⁾ 하여간, 단일화된 ㄷㅅ받침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近世表記法의 한 기준으로서 큰 소임을 다하면서 전승되었다.

4. 近代以後의 表記法(1894~현재)

갑작스러운 甲午更張을 맞이하여 國語에 대한 近代意識은 확립되었으나, 近代國語에 맞는 表記法은 이룩되지 못하였다. 諺文이 國文이 되고, 漢文 대신에 國漢文이 공용문으로 바뀌었으나, 준비가 없는 관계로 國文을 연구한 학자나 문헌이 전무하여 國語問題를 치유할 방도가 없었던 까닭이다. 우선 당시의 최대 과제는 아래아자의 音價와 그 처리였다. 그러므로, ㄹ자의 그릇된 이소습音說과 그 二字形改革을 주장한 池錫永의 「新訂國文」이 황제 재가를 거쳐 1905(光武 9)년에 공포되는 실정이었다.

난처해진 정부는 일이 저질러진 후에 國文研究所를 창설하여 사후책을 강구하였다. 그런데, 그 최종안에서 문제의 二字創製는 거부되고, 스ㅅㅋㅌㅍㅎ 새받침을 채택하였다.⁷⁾ 1909(隆熙 3)년 모처럼의 이 「議定案」은 실시되지 않았으나, 이것은 최초의 形態表記라는 사실이다. 그 대립은 한

6) 이것은 「周易」의 陰陽理致에서 유래하였으나, 柳 愼의 「諺文志」(1824) 中聲例에는 ‘猶存此論 要以見奇耦對待之理 無往不具’라 하였다. 이것은 奇耦(偶)法則 ㅌ-ㅌ, ㅍ-ㅍ 등에 따른 ㅍ(이 ㄹ)가 생성되고, 對待法則 ㅌ-ㅌ, ㅌ-ㅍ, ㅍ-ㅌ, ㅍ-ㅍ 등에 따른 ㅍ가 생성됨을 뜻한다. 反切合字表 자체가 等韻學 즉 韻圖의 응용이지만, 빈칸을 메꾼 成字圖의 縱(奇耦)橫(對待)表는 言語音이 아니라는 뜻에서 天地本然之聲이라고 崔錫鼎(1678)은 보았다.

7) 國文研究所 「國文研究議定案」(1909. 12)에 의하면, 二字創製는 가 2, 부 6으로 부결되고, 새받침 사용은 가 4, 부 1, 기타 3으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기타는 형편에 따라 쓰는 것으로 유보하자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기타 3표의 성격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자못 치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3표가 새받침을 常用으로 쓰자는 의견이 아니므로 다수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글創制 당초에 이은 2차 音素表記 대 形態表記 논쟁의 재연이나 역전된 결과를 빚었다. 이 案이 그대로 실시되었다고 하면,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일반의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시까지 된 규정은 日帝下 1911년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이나, 이것은 1921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그 8항 終聲(받침)에서는 새받침의 허용문제를 논의하다가 보류한다고 기록하였다. 이 논쟁은 무위로 끝난 3차 대립이었으나, 이어 1930년에 개정된 「諺文綴字法」은 形態表記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中樞院에서 부결되었다가 번복하는 등 일종의 綴字波動을 겪은 만큼, 그 논쟁은 4차 대립이었다. 실시된 규정으로서는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形態表記가 되는 것이다.

그 波動에서 傳統派의 반대는 주로 漢字音의 表音化와 새받침 및 된소리並書의 채택에 있었다. 그런데, 민간단체인 朝鮮語學會에서는 그보다 더 철저한 形態表記法을 작성하여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⁸⁾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1930년 綴字波動 이후 그 대립은 다시 격화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전통적인 正音派와 혁신적인 한글派의 논쟁은 도를 더하였다.⁹⁾ 1931년부터 8년여에 걸친 이 논쟁은 가장 장기적이고 끈질긴 5차 音素表記 대 形態表記의 대립이며, 후자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8·15解放을 맞이하자, 그 상태로 朝鮮語學會의 「통일안」이 나라의 正書法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國語規範은 정비되지 않은 탓으로 날이 갈수록 혼돈이 빚어졌다. 「통일안」은 살아있고, 「큰 사전」을 비롯한 책들은 그 나름대로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양파의 대립이 있었지만, 크게 사회화한 것은 1953년의 한글波動이었다. 2년여를 끈

8) 1933년 10월에 공표한 책은 ‘마춤법’으로 ㅈ받침이 없다. 이 案은 이후 수차 수정이 있었는데, ‘맞춤법’이라는表記는 그 개정세판(1940. 10)에서 처음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은 다 ‘마춤법’이라고 표기했었다.

9) 최초의 격돌은 1932년 11월 7~9일 東亞日報社 주최의 朝鮮語綴字法討論會였는데, 당시 紙上에 연재된 그 속기록이 그 내용을 생생히 알리고 있다. 두 번째 격돌은 1934년 7월에 正音派에서 발표한 「한글式新綴字法反對聲明書」의 대결이었다. 그 불꽃튀는 대립은 비방과 욕설로 점철된 증상 그것이었다.

이 波動은 독재가 李承晩의 자진철회로 종식되었지만, 이 논쟁도 역시 音素表記 대 形態表記의 대립으로서 역사상 6차에 해당한다.

몇 고비를 겪은 「맞춤법」은 이윽고 아래에서 끌어오른 요구에 부딪쳐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7차 대립의 성격이었다. 즉, 1970년에 시작하여 1979년에 최초로 작성한 國定正書法은 10·26 事件으로 보류되었고, 표류하던 그 案은 다시 다듬어져 이제 17년만에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사문화된 조항의 폐기와 편의를 위한 소폭수정에 그쳤으므로 개정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조정의 성격이며, 60년 이래의 形態表記가 재확인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5. 結論 : 正書法의 理想

우리의 表記法史가 音素表記와 形態表記의 대립으로 점철되었다고 본다면, 그 논쟁은 表記法의 一般用과 學者用的 대립이라고 할만하다. 文法에다가 語源의 이해까지도 전제된 「맞춤법」이 그대로 一般用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8·15 光復 이전과 이후는 시대적 환경으로 보아 크게 다르다. 그 이전이 침울한 日帝下에 곳곳이 버티던 學者의 시대였다면, 이후는 평등한 共和國 아래 자유로운 大衆의 시대로 바뀌었다. 따라서, 새시대에 맞는 대중적 表記法이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그러나, 音素表記가 大衆用이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音素表記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또한, 극단적인 形態表記도 불가능하므로, 이 大衆用은 形態表記를 더 쉽게 완화된 정도라고 할 것이다. 가령, 현행 形態表記를 一般用으로 계속 밀고 나아간다면, 一般은 제 國語조차 옳게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지 않겠는가? 專攻學者나 秀才上位層에게는 아무래도 좋다. 한 나라의 正書法은 의무교육을 받은 一般이 그 쓰기에서 최소 70점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이상적이다.

구체적인 쓰기의 實態調査에 대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학교 6학년생이 평균 37점, 그 교사가 평균 51점이라고 하면,¹⁰⁾ 오늘날의

「맞춤법」이 과연 一般用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하게 한다. 앞으로 생각할 것은 특히 반편과 띄어쓰기를 쉬운 방향으로 완화해서 우리 모두의 절실한 기대에 부응되게 하여야 하겠다.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광범한 實態調査에서 귀결된 문제점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形態表記의 폐기를 목적하는 것은 아니다. (1987.6.2)*

參 考 文 獻

- 國文研究所(1909). 「國文研究議定案」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1970. 서울: 一潮閣) 影印: 國文研究所 報告書.
- 金敏洙(1973). 「國語政策論」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 金敏洙(1985). “重母音 ‘ㅢ’에 대하여.” 「人文論集」(高大) 30, 1~18 면.
- 南廣祐(1961). “月印千江之曲 解題.” 「月印千江之曲上」(1961. 12. 서울: 通文館) 影印版 附錄.
- 柳 僖(1824). 「諺文志」 1938. 3. 京城: 朝鮮語學會 印行.
- 李基文(1963). 「國語表記法の 歷史的研究」 서울: 韓國研究院.
- 李東林(1963). “諺文字母 俗所謂 ‘反切二十七字’ 策定根據.” 「梁柱東古稀論文集」(서울: 探究堂), 113~144 면.
- 李東林(1974). “訓民正音創制經緯에 對하여 (俗所謂 反切二十七字와 相關해서).” 「국어국문학」 64, 59~62 면.
- 鄭暉海(1969). “한글 맞춤법의 平易化를 위하여 (한글 맞춤법에 관한 學力檢査報告書).” 「새 교육」 21-2(172), 156~161 면.
- 朝鮮語學會(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京城: 朝鮮語學會.
- 池錫永(1905). “新訂國文.” 「官報」 第三千二百號 光武九年七月廿五日 1~2 면.
- 崔錫鼎(1978). 「經世正韻」 1969. 8. 서울: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影印.

10) 鄭暉海(1969)의 실력검사에 이러한 통계가 나타났다. 물론 그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평균치가 배 이상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된다.